

# 북한 개발 소식

# 02

2019 February

통권 160호

|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상과 우리의 기도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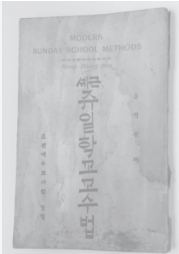
# 북한 개발 소식

2019 January

## CONTENTS

이달의 주제 :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상과  
우리의 기도



01

권두칼럼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상과 우리의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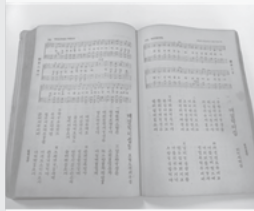
11

칼럼 1 · 유관지  
북녘 교회 수난의 상징인  
평양감옥과 교화소  
앞에도 꽃들을  
세웁시다



17

칼럼 2 · 베드로  
박해받은 복음 전도자  
리사야 장로에 대한  
증언



25

탈북민 수기 · 드보라  
나의 출애굽기(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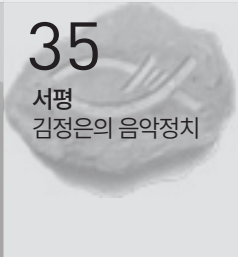


★ 28

북한소식

35

서평  
김정은의 음악정치



38

기도제목



# 북한의 기독교 박해 실상과 우리의 기도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 2019 세계기독교박해지수와 북한

국제 오픈도어선교회에서는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박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 중 박해가 심한 50개국을 발표

하여 기독교 박해 중단과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픈도어의 기독교 박해 지수는 국가 이미지나 막연한 추측에 따라 나열한 순위가 아니다. 개인적 차원 (Private Life),

### 세계기독교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2019

#### 박해압력

그리스도인인 5가지 영역에서의 박해 압력 정도

개인영역  
최고점수 = 16.7

가족영역  
최고점수 = 16.7

공동체영역  
최고점수 = 16.7

국가영역  
최고점수 = 16.7

교회영역  
최고점수 = 16.7

#### 폭력

폭력에 대한 증점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미증의 선도를 나타낸다

폭력  
최고점수 = 16.7

박해 최고점수 = 83.3

폭력 최고점수 = 16.7

순위  
#



순위	국가	박해순위
1	북한	1
2	미얀마	2
3	소말리아	3
4	에티오피아	4
5	이라크	5
6	우간다	6
7	에리트레아	7
8	에티오피아	8
9	에티오피아	9
10	에티오피아	10
11	에티오피아	11
12	에티오피아	12
13	에티오피아	13
14	에티오피아	14
15	에티오피아	15
16	에티오피아	16
17	에티오피아	17
18	에티오피아	18
19	에티오피아	19
20	에티오피아	20
21	에티오피아	21
22	에티오피아	22
23	에티오피아	23
24	에티오피아	24
25	에티오피아	25
26	에티오피아	26
27	에티오피아	27
28	에티오피아	28
29	에티오피아	29
30	에티오피아	30
31	에티오피아	31
32	에티오피아	32
33	에티오피아	33
34	에티오피아	34
35	에티오피아	35
36	에티오피아	36
37	에티오피아	37
38	에티오피아	38
39	에티오피아	39
40	에티오피아	40
41	에티오피아	41
42	에티오피아	42
43	에티오피아	43
44	에티오피아	44
45	에티오피아	45
46	에티오피아	46
47	에티오피아	47
48	에티오피아	48
49	에티오피아	49
50	에티오피아	50

높음 매우높음 극심함 박해정도

<2019 세계 기독교 박해 순위>

가족 차원 (Family Life), 지역 공동체 차원 (Community Life), 국가적 차원 (National Life), 교회적 차원 (Church Life) 등 여러 수준에서 어떤 박해 양상이 있는지 분석하고 실제 물리적 박해 사례 (Physical Violence)들을 종합하여 박해 지수를 도출하고 있다.

2019년 세계기독교박해지수가 1월 6일 발표되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올해도 어김없이 박해가 심한 50개 국가 중 1위, 즉 가장 박해가 심한 국가로 선정되었다. 18년 연속 최상위다. 본 선교회 외에도 유엔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북한의 인권 유린, 특별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핍박에 놀라움을 표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남한의 기독교인들이 이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대체로 무관심하거나 무감각한 것이 한국 교회의 현주소이다.

근래에 변화하는 정치적 상황은 교회 내에도 북한과 통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이들이 북한에서 순교의 희생과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면서 통일에 대한 소망을 논한다면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을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의 고난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 북한 기독교 박해 역사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일제로부터의 해방 직후부터 시작되었다. 교회는 구소련의 조직적인 공산화 정책에 대항했고, 김일성의 회유에 굴하지 않았다. 김일성은 자신의 외종 6촌 삼촌 강양욱을 앞세워서 북조선기독교도 연맹을 만들어 교회지도자들을 포섭, 회유하려고 했으나 실패하였다. 김일성과 교회 간의 관계는 점차 악화되었다. 김일성의 종교 회유정책은 곧 종교말살정책으로 변화되었다.

해방 이후, 공산화 이전 북한 내 기독교 인구는 20만에서 30만 정도로 추정된다. 교계에서는 해방전 북한지역의 신도수가 30만명을 넘으며 교회 수도 3,000개가 넘는다고 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북한교회 재건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해방이전에 현재의 황해남도 지역에 513개, 평안북도 지역에 452개, 평안남도에 439개, 황해북도 지역에 348개를 포함하여 총 3,022개의 교회가 있었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sup>1</sup> 한편 1950년 북한에서 발행한 조선중앙연감에 따르면 한국전쟁 전 북한의 기독교 인구는

1 이찬영 편저, 북한교회 사진명감 (서울: 총회북한교회재건위원회, 2000), p. 10



개신교 약 20만, 카톨릭 5만 8천 정도이다.<sup>2</sup> 김병로 교수는 10만의 숫자 차이를 공산당 집권 이후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신앙 생활을 중단한 이들이 있었고, 조선기독교도 연맹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이에 불응한 신앙인들이 자격을 박탈당했기 때문으로 보았다.<sup>3</sup> 즉 5년 사이에 10여만명의 성도가 이탈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조선기독교도 연맹에 저항하여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나 교회들 등 북한 정권과 기독교계 사이의 긴장관계와 그 당시 기술 및 역량 부족으로 인한 통계의 불명확성을 고려하면 실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숫자는 20만보다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전쟁은 북한의 기독교 박해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조만식 장로가 살해당하고 김익두 목사가 순교했다. 전쟁통에 많은 성도들이 남으로 이동했다. 전문가들은 약 5~8만명가량의 성도들이 남쪽으로 피난을 내려왔다고 추정한다. 그렇지만 전쟁 이후에도 북한에는 적어도 12-3만에서 많게는 약 20만에 가까운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은 당국으로부터의 극심한 박해를 견뎌야 했다.

전쟁 이후부터 불어온 박해의 고난은 국가적 성분조사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전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성분 조사에서 기독교인들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었고 발각된 성직자들과 교회의 주요 성도들은 처형당하거나 오지로 추방되었다. 추방지역은 탄광 지역이나 임업 지역 등 산골 오지였다. 60년대 말-70년대 초 이후로는 체계화된 거대 수감 시설인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본 선교회는 여러 증언과 정황을 통해 북한 정권 초기서부터 처벌을 받고 외지로 추방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성도가 적어도 5만에서 7만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미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제공업체 올소스 어널리시스가 2015년 12월 15일 공개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중 하나인 16호 관리소, 일명 화성관리소의 위성사진 일부. 함경북도 화성군에 있는 16호 관리소는 규모가 539km<sup>2</sup>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조선중앙연감 1950 (조선 노동당 출판사, 1950). p. 365.

3 김병로, “북한 종교인 가족의 존재양식에 관한 고찰”, 통일정책연구 20(1), 2011.06, pp 160-161.

그러나 그 와중에 자신들의 존재를 들키지 않고 적지 않은 수의 성도들이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족을 중심으로 이어왔음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제대로 신앙이 전수가 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적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린 사례도 적지 않다. 탄광이나 산간 오지로 추방된 성도들 중에서도 비록 엄중한 감시와 험한 중노동에 시달리는 등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족을 중심으로 신앙을 전수하며 지금까지 믿음을 이어온 가정이 상당수 존재함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김정일이 정권을 잡으면서 더욱 심각해졌다. 김정일에 의해 주도된 김일성 유일사상 확립은 북한이라는 국가를 유사종교단체화 하였다. 김일성은 살아있는 신과같이 여겨졌고 이에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살아남을 수 없었다. 기독교는 당연히도 유일체제에 반하는 악한 사상으로, 나라를 위협하는 미제의 종교로 간주되었고 극심한 박해가 가해졌다.

비록 북한은 60년대 말부터 국가 발전을 위한 고급 인력의 필요를 느끼기도 했고 김일성 당시 함께 항일 혁명 투쟁을 했던 투사

중 기독교인들도 있었기에 북한 당국은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일부 기독교인들을 사면하기도 했고 72년 김일성 탄생 6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적인 대 사면을 실시하기도 했다.<sup>4</sup> 그러나 이 사면도 더 이상 신앙을 가지지 않고 당에 충성하겠다는 비밀 맹세를 한 이들, 즉 신앙을 배교한 이들만 가능했다.<sup>5</sup> 대외적으로는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을 내세워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프로파간다에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기독교 박해의 종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70년대 말 이후 김정일이 후계자로 부각되면서 수령 우상화 작업은 더욱 박차가 가해졌고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은 더욱 무자비해졌다. 특히 90년대 들어서 공산 진영의 붕괴는 북한 정권에게 더 큰 두려움과 긴장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내부의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졌다. 특히 동유럽의 공산주의 와해에 기독교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기독교 세력 박멸을 위한 집요한 추적을 이어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이어진 대기근으로 인한 국가경제붕괴는 북한 기독교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북중 국경이 붕괴하고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강을 건너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족 교회

4 김성태, “북한교회의 고난의 발자취와 통일된 한국교회의 사명”, 한국선교 KMQ 16.3 (2017), pp 40-41., 김병로 (2011), p. 172-173.

5 김성태(2017), p 39.

와 성도, 남한 선교사 등 기독교인의 도움을 받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다. 대 기근으로 인한 굶주림을 피해 강을 건넌 수백만의 북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배품과 나눔을 실천했던 사람들은 중국 내 조선족 동포들, 그 중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었고 한국에서 파견된 현지 선교사들도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기존 중국 사역에서 방향을 선회하여 동포들을 돕는 일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이전에는 만날 수도 없었던 동포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라는 마음으로 전문적으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 훈련을 하기도 했다.

강을 건넌 북한 사람들 대부분은 다시 가족이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 중 복음을 받아드린 신자들은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과 함께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런 신자들 중에는 가족을 넘어 어떤 지역내에 상당한 그룹을 형성할 정도로 복음을 전파한 이들도 있지만, 신앙 활동이 북한 당국에게 적발되어 큰 고난을 당한 그룹도 있다. 이러한 박해의 소식이 뒤늦게나마 외부로 알려져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신자의 수는 정확하게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5만에서 많게는 수십 만명으로 추정된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계속 이어졌다. 북한의 국경 통제는 해가 갈수록 더욱 강화되었고, 외부의 영향력을

엄격히 통제하기 원하는 북한은 계속해서 기독교인을 찾고 박해하기를 계속했다. 국외로 출국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반기독교 교육은 기본이고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을 조사할 때에도 기독교인 접촉여부 및 기독교 신앙을 가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조사 항목이 되었다. 성경을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내국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경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선교사나 사역자들을 유인, 납치하기도 하는 등 기독교 선교활동이 정권에 반한다는 명목으로 악행을 자행하고 있다.

### 북한 기독교인에 관한 논란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북한에서 박해받고 있는 기독교인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해 여러 연구 단체와 전문가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 최대 50만까지 보는 이들도 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중요하게 제기되고, 기독교 박해가 중요한 인권 침해로 거론되면서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 역시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북한 내 기독교인에 대한 정상적인 통계자료를 구할 수 없고 각종 증언이나 역사적 정황에 의지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나 검증이 어렵다 보니 논란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에 대해 증언하고

알려온 오픈도어선교회는 그간의 선교활동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근거로 현 북한의 기독교 인구를 20만에서 40만으로 추정한다. 이 숫자는 그루터기 신자들, 즉 북한 정권의 눈을 피해 신앙을 숨기고 지하에서 신앙을 이어온 성도들 외에도 이미 당국에 의해 발각되어 고난 가운데 있는, 즉 수용소에 수감되었거나 오지로 추방된 기독교인 및 그 가족과 자손들, 그리고 90년대 이후 중국 등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귀환 탈북자 중심의 새로운 성도들을 포함한 것이다. (다만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에 소속된 교회와 그 성도들은 특별히 고려하지는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용소나 추방된 성도들과 그 후손들을 약 5만에서 7만, 그루터기 신자들과 그 후손들이 약 6만에서 10만, 그리고 귀환 탈북자 출신 성도들이 적어도 5만에서 많게는 수십만까지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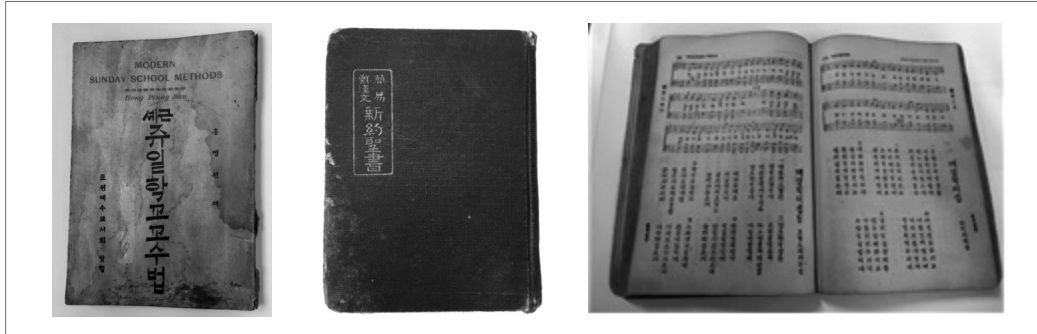
이러한 추정의 주요 근거는 역사적 정황 외에도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 연결된, 현재도 북한 내에 존재하는 성도들을 통한 확인이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그루터기 출신과 탈북자 출신 지하교회 등 약 10만여명에 가까운 성도들의 존재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영적 성장과 생존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탈북자로서 복음을 듣고 다시 북으로 돌아간 성도들에 대해 제대로 된 교회 형태를 갖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충분한 교육

없이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통해 잠깐 듣고 믿은 단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지하교회 성도로 볼 수 있느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거기에 단지 도움을 얻기 위해 일시적으로 믿는 척만 했던 탈북자도 상당수이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지적은 그루터기 신자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제기된다. 선조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았다고는 하지만 당국의 감시와 세뇌교육으로 제대로 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정상적으로 전수할 수는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전수된 믿음이 신앙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 북한의 기독교인의 숫자는 매우 소수라고 이야기한다.

자유롭게 성경을 보고, 설교를 원하는 대로 들을 수 있고, 좋은 교회에서 많은 신앙 훈련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남한의 상황과 비교할 때 상당수의 북한 신자들이 아무래도 불편하고 기초적인 수준의 신앙 고백에 머물러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탈북자 출신 중에는 도움을 받기위해 신앙을 이야기하는,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비록 잠깐 배운 성경 말씀이지만 열악한 상황과 박해 가운데서도 진지하게 복음을 받아드리고 수령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귀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역시 다수 존재한다. 박해 가운데서도 오래된 성경책과 신앙 자료들을 목숨같이





<북한 성도들이 보내온 1920-30년도에 발행된 주일학교교재와 국한문 신약성경과 찬송가.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고자 애쓴 성도의 피와 땀을 느낄 수 있다>

간직하며 조상때로부터 이어져 온 복음의 전통을 어렵게 믿음을 이어온 그루터기 신자들이 있다.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잇기 위해 애쓴 이들을 성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평안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점점 영적으로 허약해져만 가는 우리가 오히려 겸허하게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성도의 자질을 평가하고 성도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는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는 오만한 행동이 되기 십상이다.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를 갈망하나 잔인한 종교 탄압에 심적으로 억눌려 있거나, 믿음 때문에 실제적인 박해의 피해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불가항력적인 미숙함이나 지식의 부족을 근거로 성도인지 아닌지를 논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성경적 접근이다. 이들을 당연히 믿음의 형제자매로 인정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하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맞는 순서일 것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 북한 내에 제대로 된 교회 조직이 존재하는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북한에 믿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으나 제대로 된 목회자를 가질 수 없을 뿐 아니라 주일 모임조차 가지기 어려운데, ‘교회’로 지칭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북한과 같은 극심한 박해가 있는 지역에서 우리가 아는 ‘교회’의 모임이나 조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에 존재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 또는 가족적 차원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본 선교회는 밀접하게 신앙으로 연결된 성도들의 그룹 역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남한에서 생각하는 교회 조직과 같이 모두 모여 예배를 드린다던지 수시로 모인다

던지 하는 그런 모임은 아니지만, 북한에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시는 때로 묶여진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돕고 섬기고,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와 때를 따라 복음을 전파함을 통해 오히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앞서 언급된 조직화된 모임의 개념 이상의 넓은 의미로 가지고 있다. 지하교회(Underground Church)라는 단어 역시 특정 교회 기관이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공개적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이미 폭넓게 쓰이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의 기독교들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이며 박해 가운데서도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로 지칭해야 할 것이다.

### 최근의 북한 기독교 박해 상황

2018년도는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외교적 사건들이 많았던 한해였다. 북한이 종전과 다르게 비핵화를 표방하며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는 모습에서 북한이 장기적으로 정상 국가화를 위해 변화의 시동을 걸었다고 보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북한의 의지가 감지된다. 그러나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에 맞는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과 인권 존중에서는 아쉽게도 별다른 변화가 감지 되지 않거나 오히려 통제가 심해지고 있다.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통한 단속이 강화되어 자본주의품을 통제한다는 명목 아래 복장이나 두발까지 단속하는 것은 물론 개인이나 기업소의 물품들도 세세히 검열하며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주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한 김정은 정권의 의지가 엿보인다. 단속 대상에 종교 물품이나 행위가 중요하게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김정은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반감은 북한에 억류된 이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 들어서 북한 측의 지목을 받고 억류나 감금된 여행객, 활동가, 사업가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호텔에 성경을 놓고 갔다가 6개월 억류된 제프리 파울, 무심코 외장저장장치에 기독교 관련 자료를 소지했다가 붙잡혀 2년 넘게 억류, 복역했던 캐네스 배 등 기독교 관련 소지품, 활동은 그것이 비록 사소한 것일지라도 북한이 자국민도 아닌 외국인들을 억류하고 감옥에 가두는 데 충분한 이유가 되었다. 미국 국적의 억류자들은 대부분 석방되었지만,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다 억류된 한인 선교사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종신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신앙 안에서 동포들을 돕다가 억류된 조선족 및 중국인들도 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각종 경로를 통해 북한 내의 박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성경이나 예수 영화 등 종교 물품, 미디어는 유포자를 사형 시킬만큼 큰 죄로 여겨지고 있다. 당국에 의해 적발, 체포되고 행방이 묘연한 신자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있다. 비핵화나 화해무드와 무관하게 북한의 기독교 박해 기조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 선교 환경도 계속된 경직 상황에 놓여있다. 중국의 선교사 추방이 여전히 강력하게 진행중이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계속해서 중국 내 종교 그룹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국외 종교인들에 대한 추적과 감시, 관리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7년 초 사드 문제로 한인 선교사들을 다수 추방했던 중국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교사 추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국 내 기독교 그룹을 대상으로도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 뿐 아니라 삼자애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조선족 교회에 대한 외부 기독교 그룹과의 협력 및 대외적인 선교사역 참여를 강하게 감시, 통제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을 대상으로 한 사역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sup>6</sup> 이러한 중국의 정책기조에 더하여 동북아의 외교적 지형 변화로 김정은이 수 차례 방중하여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나누는 등 북중

관계가 매우 밀접하게 변화하였다. 자연스럽게 탈북자들에 대한 대우가 더욱 악화되고 관련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선교사 및 조선족 교회에 대한 통제 강화가 계속되고 있다.

### **박해받는 형제자매와 함께 걷는 한국교회가 되길**

북한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박해해왔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부인하는 교회는 없을 것이다. 북한 체제가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 부정적인지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정작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사실은 와 닿지는 않는 것 같다. 세계 각지의 기독교인들이 북한의 끔찍한 박해에 놀라움을 표하고 형제자매들을 향한 긍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반면 가장 직접적으로 북한의 형제자매들의 이웃이 되어야 할 남한의 교회들이 대체로 무관심한 관점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기독교 박해관련 캠페인과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인권 단체도 아니고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일하는 곳도 아니다. 단지 교회가 존재할 수 없거나 매우 미약한 곳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핍박이 있는

6 북한개발소식 18년 9월호에서 중국의 선교환경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북한 선교 현장의 변화와 우리의 기도”(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및 “중국교회 이해를 위한 ‘(新)종교사무조례’의 고찰”(김종구 선교사) 참고




<북한을 위한 기도와 캠페인을 벌이는 멕시코 청년들>

지역에도, 성경을 가질 수 없고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이 없다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70여년전 구소련과 공산권에서부터 지금까지 세계 각지에서 경험해 왔다. 그 은혜와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부요 지체로서 비록 미약하고 고통받으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형제 자매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따름이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자유로운 신앙 생활의 보장은 어떤 정치적, 또는 신학적 입장을 넘어서서 외쳐야 할 우리의 당연한 구호이다. 일부 인권 단체의 책임이 아닌 바로 온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북한 지하교회는 멀리 있는, 또는 상상속의 남이 아니다. 누군가는 북한에 지하교회 없다고 하고, 국가가 인정한 조그런 산하 교회와 모임 외에 기독교인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오픈도어선교회는 지금도

10만에 가까운 성도들과 직간접적 관계를 가지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 하기위해 애쓰고 있다. 우리가 박해받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잊거나 무시하고 그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함과 축복에 안주 한다면 통일 이후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분들을 뵈 수 있겠는가? 누가 뭐라 해도 한국 교회가 말로 이들의 가장 가까운 형제이다. 또 마땅히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박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 큰 고통과 아픔의 비극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박해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박해를 통해 복음의 가치와 본질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일어난다. 우리 사고 전반에 깔린 기복신앙과 맘모니즘(물신주의)의 더러운 실체가 드러난다. 그리고 다시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다. 올 한해 나 자신이, 또 우리 교회가 박해받는 형제 자매와 함께 걷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눈물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드리자.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빛나는 성도의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자. 진정한 복음적 통일의 기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 북녘 교회 수난의 상징인 평양감옥과 교화소 앞에도 풋돌을 세웁시다.

유 관 지(북한교회연구원 원장)

기억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필자는 이「북한개발소식」2013년3월호(통권 89호)에 “풋돌을 준비합시다”라는 글을 발표한 일이 있다. 통일, 또는 북녘의 개방이 이뤄지면 교회당들을 비롯해서 기독교 유적들이 있던 자리에 ‘여기는 이런 교회(또는 이런 기관)가 있었던 자리’라고 새긴 작은 풋돌[標石]을 하나씩 세울 준비를 하자는 내용이었다.

오픈도어선교회가 지난 1월 16일에 발표한 <2019 세계기독교박해보고서(World Watch List)> 내용을 살피면서 ‘아, 평양 감옥이 있던 자리와 교화소 앞에도 풋돌을 세워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평양감옥과 교화소가 기독교유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할 것이다. 깊은 관계가 있다. 그곳은 일제 강점기부터 기독교인들이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국하고 순교한 현장이다.

지금도 그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을 것이다.

‘평양감옥’은 일제 강점기의 이름이다. 해방이 되고나서 그곳은 ‘평양교화소’(인민 교화소)가 정식 이름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 자료들도 있다.)라고 간판을 바꿔 달았을 것이다.

그때 민족대표 가운데 한 분이었던 신석구(申錫九)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공산정권에 의해 그곳에 투옥되었다. 6.25 전쟁 당시 공산정권이 평양에서 급하게 후퇴할 때, 그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집단으로 학살을 당했다.

지금의 평양교화소는 평양감옥 자리가 아닌 곳에 새로 지어졌을 것이다. 6.25 전쟁 때 평양이 거의 파괴되어 1950년대 중반에 도시를 새로 건설하다시피 했으니까 말이다. 지금의 평양교화소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혀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간혀 있을 것이 분명하다.

이 글을 쓰면서 평양감옥과 교화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기 위해 애를 썼으나 만족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교화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여하튼 평양감옥과 교화소는 일제강점기부터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 북녘 교회의 수난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아니, 북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수난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에 반대하는 전국의 교회지도자들을 대부분 평양감옥에 수감했으니까 말이다.

### 3.1 만세운동, 신사참배 반대와 평양감옥

올해는 3.1 만세운동 100년이 되는 해인데 3.1 만세운동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지방의 만세운동은 대부분 3월 1일 이후에 일어났고 몇 도시에서만 서울과 같은 날에 만세를 불렀는데 그 ‘몇 군데’ 가운데 북녘의



평양·진남포·의주·원산·해주·개성, 여섯 도시가 있다.(함흥은 3월 3일에 만세를 부르려다가 약간의 차질이 있어 2일부터 산발적으로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일으킨 북녘의 도시들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한다.)

그 도시들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의 중심에는 교회, 또는 기독교학교가 있었다. 평양은 장대현교회와 남산현교회, 그리고 송덕학교, 진남포는 신흥감리교회, 의주는 양실학교, 원산은 원산중앙감리교회, 해주는 남본정교회, 개성은 송도고보와 호수돈고녀에서 각각 만세운동이 시작되었다.

여기 이름이 나온 교회들 가운데 다섯 교회는 당시의 담임목사가 민족대표였다. 장대현교회의 길선주(吉善宙)목사, 남산현교회의 신흥식(申洪植)목사, 원산중앙교회의 정춘수(鄭春洙)목사, 해주 남본정교회의 최성모(崔聖模)목사이다.

일본 경찰은 평양의 만세운동 주동자 4백여 명을 체포해서 그 가운데 48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 기독교인사가 11명, 기독교계 학교의 교사가 9명, 학생이 9명이었다. 평양감옥은 이들의 체취가 스며 있는 곳이다.

그 가운데 박석훈(朴錫薰)목사는 고문 후유증으로 11월 15일에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 ‘삼일운동 당시 옥중에서 순국한 유일한 목사’라는 기록을 남겼다. 박석훈 목사는 당시 남산현교회 부담임자였는데 담임자인 신흥식



<1945년 8월 17일 평양형무소 출옥 후 주기철 목사님 사택에 모인 출옥성도들>

목사가 민족대표로서 서울에 가 있었기 때문에 만세운동의 실무를 많이 담당하였다. 박석훈 목사의 손자인 박승일(朴勝一) 목사(아동 문학가·춘천중앙교회 은퇴)가 필자와 절친한 사이인데 조부를 기념하는 사업이나 시설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가로 젓는다. 다음에 만나면 조부가 순국한 평양감옥 자리에 꽃돌을 세우는 일은 당신이 맡아야 된다고 하려고 한다. 박석훈 목사의 차남인 박상준(朴相濬) 목사는 해방 후 황해도 웅진에서 목회를 했는데 공산정권의 체포를 피해 한 때는 화장실의 분노를 퍼내고 그 안에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를 박승일 목사로부터 들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일제강점기말 신사참배 강요가 심해졌을 때 일제는 전국의 신사참배 반대자들을 대부분 평양감옥에 수감하였다. 평양 산정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기철(朱基徹)목사는 그곳에서 순교하였다.

평양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맞아 출옥한 분들을 ‘출옥성도’라고 부르는데 출옥성도들은

평양을 떠나지 않고 한국교회 재건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재건운동은 원하는대로 전개되지는 않았으나 평양을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재건운동이 벌어진 일은 평양이 한국교회의 역사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인가를 잘 알려주는 일이다.

### 수난은 현재진행형

북한교회의 수난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는 탈북민들의 산발적인 증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이고 국제단체들의 발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는 일이다. 국제단체들의 발표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앞에서 언급한 오픈도어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기독교박해보고서(약칭 WWL)>이다. 이 보고서에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제일 심한 나라 1위로 북한이 꼽히는 일이 18년째 반복되고 있다.

미 국무부도 매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5월 29일에 발표된 <2018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8만~12만 명이 갇혀 있으며 이들중 상당수는 종교적 이유 때문에 수감되어 있다고 밝히고 하였다. 또 북한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119명이 처형당했으며 770 명이 수감되었고, 종교적 이유로 87명이 실종됐고 48명이 강제이주 당했으며 44명은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밝히고 있다.

영국에 릴리즈 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이라는 기독교박해 감시 단체가 있다. 루마니아 출신으로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불리는 리차드 웜브란트(Richard Wurmbrand) 목사가 50년 전에 설립한 단체인데 이 단체가 2017년 12월 30일에 발표한 <기독교 박해 예측보고서>를 보면 2018년에 가장 염려되는 기독교 박해국으로 중국을 꼽았다. 이 예측은 불행하게도 적중하여 중국은 작년 2월 <종교 사무조례(속칭 신종교법)> 시행을 계기로 기독교에 대해 숨막히는 박해를 가하고 있다. 릴리즈 인터내셔널은 2018년의 ‘요주의 기독교박해국’으로 인도, 나이지리아, 베트남, 북한, 이란 이집트 등을 꼽았다. 오픈도어의 <2019 세계기독교박해보고서(WWL)>에 이 국가들의 이름이 올라 있어 예측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고 있다.

북한은 미국 국무부가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발표하면 조선그리스도교련맹, 조선종교인 협의회, 나가서는 외무성 대변인이 모두 동원되어 이를 공박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2016년 08월 22일(월)자 <로동신문> 6면에는 “국제적인 심판대에 꿰어앉혀야 할 《종교 재판관》”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는데 원문대로 부분, 부분을 소개한다.

『세상에 제코도 못사는 주제에 분수없이 남의 일을 거들며 이러쿵저러쿵 간참해나서는 꼴볼견이 없다. 미국이 바로 그렇게 놀아내고 있다. 미국이 해마다 벌려놓고 있는 세계종교

자유에 관한 년례보고서발표놀음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2015년 국제종교자유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의 종교실태에 대해 제나라대로 《평가》하였다.(중략)로씨야에 대해서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모든 교파들의 건설적인 공존을 위한 이 나라의 노력과 긍정적인 움직임들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마치 이슬람교도들이 참기 어려운 생활조건에서 살고있는 듯이 꾸며대서 로씨야의 종교실태를 헐뜯었다.(중략) 제 스스로가 국제종교재판관이라도 되는 듯이 행세하며 터무니없이 놀아내고 있는 것이다.(중략) 미국은 지난 세기 50년대에 일으킨 조선전쟁때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1900여개에 달하는 교회당과 절간들을 모조리 파괴하였으며 수십만명에 달하는 무고한 종교인들을 잔인하게 살육한 종교말살자들이다.(중략)미국은 자국내에서도 이슬람교를 비롯하여 소수종교들에 대한 탄압과 배척행위들을 일삼고 있다.(하략)』

2, 3년 전부터 <로동신문>에는 종교관련 기사가 실리는 일이 크게 줄어들었다. ‘웬 일일까? 혹시 강경론자인 김영철이 종교 문제를 담당하는 로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이 된 것과 무슨 관계가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미국무부의 발표를 반박하는 기사도 실리지 않는다. (<조선 중앙통신>에는 보도되는 것 같은데 <조선 중앙통신>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답답하다.)





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히 13:3)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어기는 일이다. 그것은 최악이다.


### **모든 교회사설들과 정치범수용소들 앞에도**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역사유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역사유적 답사가 여러 단체, 또는 교회에 의해 매우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고, 한걸음 더 나가서 유적 답사 안내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실시되고 있다.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는 3년 전에 한국 기독교문화유산해설사 양성 강좌를 개설해서 작년엔 제3기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목요일 저녁에 실시되는 이 강좌에 참석하기 위해 매주 KTX를 타고 부산에서 빠지지 않고 올라와 수료한 분도 있고, 호남지역에서 그렇게 한 분도 있었다.

이 과정에 “북한지역 기독교 역사와 기독교 문화유산”이라는 제목의 강의가 들어 있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데 강의 시간에는 ‘어서 속히 통일이 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북한의 기독교 유적들이나, 유적들이 있던 자리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강의실에 가득해지는 것을 느낀다.

이 열망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날이 오면 평양감옥이 있던 곳과 교화소 앞에 일제강점기부터 분단 시대까지

그곳에서 이뤄진 북녘 성도들의 수난을 새긴 꽃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평양감옥과 교화소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고난을 겪은 모든 교회사설, 정치범 수용소, 학살이 행해진 탄광 등 여러 장소에도 꽃돌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북녘 성도들의 수난에 대해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 박해받는 복음전도자 리사야 장로에 대한 증언

베드로 형제

이사야처럼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전도자가 북한에 있다. 필자는 북한에서 박해받는 복음전도자 리사야 장로에 대하여 증언한다.

리사야 장로는 북한정권의 감시 속에서 박해받으며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리사야장로의 부친은 해방 전에 미국선교사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목사안수를 받았으며 평양신학교와 A지방 신학교를 오가며 성경과목을 가르친 최초 신학교 성경교사이다.

리사야장로의 조부이신 리신라 장로는 평양 ○○에서 1907년 평양대부흥을 맞았고 평양신학교와 ○○국민학교를 후원하며 평양과 A시에서 ☐☐공장을 운영했다. 리신라 장로의 집에는 해외 선교사들이 늘 거주했으며 A시의 집에서 ○○○신학교를 시작했다. ○○○신학교에서 성경과목은 리신라 장로의 아들인 리목사가 가르쳤다. 당시

선교사들은 협력자로 힘써 기도하며 도와 주었다.

○○○ 신학교에서 목사가 배출되면서 리신라 장로는 교회건물의 필요성을 깨닫고 A시 교회건축을 위하여 헌신했다. 리신라 장로의 주도로 1910년경에 교회부지가 마련되고 본인이 직접 교회명칭을 써서 해당기관에 찾아가 교회부지로 등록하고 등기부등본을 만들었다. ○○교회는 장로 교회로 세워졌으며 교인들이 늘어나서 점차 분립하게 되었다. 리신라 장로는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맡은 S자매를 아들 리목사의 아내로 맞아 며느리로 삼았다.

리신라 장로는 교회를 계속하여 짓기 위하여 ○○교회장로에서 사임하고 같은 지역에 △△교회, □□교회, ●●교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헌신했다. 리사야 장로는 부모를 통하여 들은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며 리신라 장로의 교회개척에 대하여 증언했다. 1907년 평양대부흥 이후 그 지역에서 장로교 선교사들이 리신라 장로의 집에서 신학교를 함께 시작하여 ○○교회부터 ◇◇교회까지 세웠다.

그리고 1938년-1945년 사이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A시에 상주하지 않았다. 대신 감리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리신라 장로와 함께 생활하면서 새롭게 ◆◆교회를 세웠다. 교회는 감리교선교사에 의하여 목사안수를 받은 K목사를 담임으로 세웠다. 리사야 장로는 K목사가 ◆◆교회 최초의 목사라고 이름까지 생생하게 기억했다. K목사는 전쟁 후 교회 박해 때에 일부 교인들과 남한으로 내려갔다.

K목사를 떠나보낸 다음 리신라 장로는 장로교 목사인 아들 리목사에게 ◆◆교회를 위임하고 남은 성도들을 돌보도록 했다. 1953년 전쟁 후 북한정권은 54년도에 교회를 먼저 박해하기 시작했다. A지역 교회들이 문을 닫고 박해 받자 리목사는 교인들과 평양○○구로 옮겨가 교회를 계속했다. 당시 평양은 A지역처럼 교회박해가 극심하지 않았다고 리사야 장로는 증언한다. 리사야 장로는 그때 평양○○국민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몇 년 지나지 않아 평양에서도 교회 박해가 시작되어 교회에 모일 수 없게 되었으며 가정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리목사는 평양 □□와 ○○ 지역 등 일대를 돌며 가정 예배를 인도했는데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리사야 장로가 따라다녔다. 예배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몇 십번을 설교하고 집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마당에 줄을 서서 기다려서 예배를 2차 3차 드렸다.

58년에 평양에서 대대적인 기독교인 탄압이 있으면서 다시 A시로 내려온 리목사는 그곳에서 가정교회를 운영했다. 59년 리목사가 체포되어 가족과 함께 B지역 ○○ 탄광에 강제 추방되었다.

그 후 북한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생겼다. 한 부류는 북한정권이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독교인과 한 부류는 북한정권이 파악하지 못하는 기독교인이 있다. 북한정권이 파악한 기독교인은 해방 전에 교회에 등록한 성도와 50년도 전쟁 후 신원파악을 한 기독교인과 그 가족이다. 북한 정권은 58년도 전에 파악된 기독교인들을 산간벽지와 탄광에 추방하고 철저히 감시하며 박해했다.

그리스도인이 추방지에서 전도하는 경우 정치범으로 무기징역을 살든지 혹은 처형당하고 연관된 가족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 그럼에도 해방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루터기 신앙인과 그 후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58년 이후 복음전도를 받은 신앙인들과 탈북하여 중국에서 복음을 전도 받고 돌아온 신앙인들이 있다. 이들은 북한정권이 파악하지 못한 대상으로 감시나 박해를 받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한다.

여기서 북한기독교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하여 분명하게 정리할 문제가 있다. 조선그리스도연맹도 북한기독교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는가?이다. 조그련에 공직 목사로 소개되는 리성숙은 조선의 하나님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당당하게 말한다.<sup>1</sup> 평양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리성숙 목사의 고백을 통하여 조그련이 북한교회의 한 형태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외신 기자와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의 인터뷰 (유튜브 영상 캡처)>

조그련과 중국 삼자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은 조선의 하나님 김일성을 구원자로 믿는 김일성 그리스도교이다. 조그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없다. 조선그리스도연맹은 북한그리스도인들이 받는 박해를 받지 않는다. 조그련을 종교 단체로 분류하려면 기독교와 다른 새로운 종파로 보아야 한다.

북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련을 이단이나 가짜로 가장한 기독교 단체라고도 하지 않는다. 박해받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조그련을 기독교의 신앙을 대적하며 분열 시키고 말살하기 위한 정치폭압수단으로 본다.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조선그리스도연맹을 기독교의 한 형태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분열하고 민족을 분열하는 행위라고 본다.

통일을 기도하고 준비하는 한국교회라면

조그련의 실체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김일성 그리스도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한국교회나 한인교회들이 조그련 산하의 봉수교회나 칠골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그 실체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다만 그

중에 듣는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겨 지기를 바랄 뿐이다.

북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로 고백한다. 기독교의 머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북한정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을 박해한다. 북한정부에 의하여 작성된 리사야 장로의 개인문건에는 “악질 종교인”이라고 적혀있다.

1 <https://www.youtube.com/watch?v=SwwEiV0lg8o> 봉수교회 리성숙 목사. 조선의 하나님 김일성,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을 과학의 시대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발언.



북한정부는 기독교인을 “악질종교인”, “종교인”, “교양대상”등으로 표기하고 관리한다. 개인문건에 “악질종교인”으로 기록된 대상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특별히 감시받으며 박해받는다.

리사야 장로는 “악질종교인”으로 보통 종교인과 구분되며 교양대상자체가 아니다. 악질종교인은 기본적으로 처형대상이다. 리사야 장로의 악질종교인 항목에는 그의 할아버지가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단되었으며, 아버지도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형된 사실이 적혀 있다. 그리고 리사야 장로가 어린 시절에 교회성가대를 한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리사야 장로는 부모님과 함께 1959년 A시에서 추방되어 B지역 ○○ 탄광에 끌려갔다. 리사야 장로의 부친인 리목사는 ○○탄광에 모여든 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를 비롯한 직분자들을 모아 가정교회를 조직했다. 가정교회의 리더는 목사들이 우선 맡고 목사가 없는 지역은 장로와 집사 권사와 같은 사람들이 맡았다.

그러나 그들에게 설교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선뜻 설교하려는 목사가 없었다. 가정교회의 책임을 맡은 직분자도 자신의 직분을 숨기려고 했다. 리목사는 자신이 직접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들 리사야를 데리고 가정교회를 돌며 설교했다. 그때마다 리사야는 주변을 감시 하며 리목사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경비를 섰다.

북한정권은 ○○탄광에 모인 그리스도인

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알았다. 북한정권은 교인과 종교지도자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종교지도자들을 당시 ○○탄광보다 더 열악한 산악지대인 C지역 □□탄광에 이주시켰다. □□탄광에는 종교지도자들과 일제 강점기 기술자와 순사, 전쟁 시기 치안대, 국군포로 중에서도 장교출신이 대부분이었다.

북한정권은 출신성분을 구분하여 교양 대상이 아닌 척결대상만 선택하여 가장 열악한 □□탄광에 강제로 이주시켰다. □□탄광은 가스폭발사고가 잦은 탄광으로 갱도 안에서 가스 폭발사고가 나면 갱도 입구를 막아 모두가 질식사 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 탄광에서도 리목사는 A지역, D지역, E 지역 등에서 추방된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 그리스도인들을 모아서 가정교회를 시작했다.

□□지역 탄광의 열악한 환경과 잦은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속에서 복음은 살아서 역사했다. 리목사는 197X년까지 가정교회를 활발히 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보위원들이 리목사의 가정을 수색했다. 리목사의 집에는 성경과 신학서적들이 많았다. 보위원은 리목사의 가족을 시켜서 책들을 마당에 모아놓게 하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살랐다. 리목사는 보위부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순교했지만 가정교회를 모두 지켜냈다.

리목사가 순교한 후 리목사의 부인 S자매가 가정교회를 돌보았다. 리사야는 어머니와

함께 가정교회를 돌보며 말씀전도자로 성장했다. S자매와 리사야의 헌신으로 지역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흩어지지 않았고 전도에 더욱 헌신했다. 그러나 북한정권의 감시와 탄압을 피할 수 없었다.

리사야 장로는 자신을 수십 년 감시해온 ○○당비서가 결핵으로 사경에 처했을 때 그를 돌봐주고 치료해주었다. 리사야 장로의 헌신적인 섬김에 감동한 ○○당비서는 수십 년 리사야 장로를 감시했지만 신앙의 죄 성을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1996년 많은 사람이 굶어 죽던 해에 ○○당비서는 심한 기아로 허약해져 결핵에 걸렸고 두 아들이 굶어 죽고 남은 아내와 딸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침상에서 피를 토하며 죽어가던 ○○당비서를 찾아와 몸을 닦아주고 죽물을 떠먹여 준 사람은 리사야 장로 오직 한 사람이었다. 그때에 ○○당 비서가 리사야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했다. 리사야 장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선물로 주신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달은 복음을 전하오니 듣는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당 비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영접 기도를 했다. ○○당 비서는 한 주일을 넘길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리사야 장로의 헌신적인

섬김으로 6개월을 더 살았다. 그는 아내와 딸이 찾아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유언을 남겼다.



리사야 장로의 헌신은 새로 부임된 ○○당비서에게 전해졌다. 새로 부임된 ○○당비서는 모두 굶어 죽는 시기에 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사람을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와 목욕시켜주고 밥을 먹여준 사람이 로동당에 입당해야 한다며 리사야 장로의 로동당 입당 청원서를 상급당에 제출했다. 그러나 청원서를 넣을 때마다 바로 부결되어 내려왔다. 비서가 이상하여 그의 개인 문건을 찾아보았다.

리사야 장로의 개인문건에는 “악질 종교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이었다. 북한정권이 리사야 장로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악질 기독교인으로 처형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리사야 장로는 자신을 십여년 감시한 ○○당비서가 전염성이 강한 결핵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그를 목욕시켜주고 먹여주며 살려냈다. 새로 부임한 비서는 리사야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왜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는지 묻게 되고 복음을 듣기 위하여 찾아왔다.

얼마나 두렵고 가슴 떨리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 리사야 장로를 알면 깨닫게 된다. 필자는 그렇게 리사야 장로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도 받았다. 리사야 장로가 전하는 복음은 생명 그 자체다. 복음은 자신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예수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 주셨듯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내 생명이 없어져야 부활한다. 복음은 나의 생명을 죄인 된 자, 원수 된 자에게 내어주게 하는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복음의 신비를 깨달은 것은 C지역 보위부에서이다. 필자는 200X년 ○월-X월까지 C 지역 보위부와 보안서의 취조를 받았다. 보위부의 취조는 사상검토이다. 정치적으로 다른 이념이나 견해를 가지고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검토하여 정치범으로 처벌할지 정하는 기관이 보위부이다. 보안서는 보위부의 취조 대상이 아닌 대상을 취조한다.

보위부에서 취조를 받은 내용은 기독교와 자본주의사상에 대한 검토부분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와 자본주의사상검토는 본인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필자는 지하교회와 관련된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다. 아내와 어린 아들은 물론 나에게 생명을 주며 복음을 전한 리사야 장로와 그의 가족, 나아가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대거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야

한다.

북한정권은 기독교인과 자주 접촉하는 나에 대한 신고를 받았지만 근거가 없었다. 그래서 가장 약해 보이는 나를 보위부에 감금하고 두 달 동안 국수 몇 오리 풀어놓은 물을 먹이며 취조했다. 그러나 내 생명 하나로 일을 끝 내기로 결심했기에 한 마디의 단서도 찾아 내지 못했다. 하지만 육체는 3도 허약으로 다리가 붓고 항문이 열려서 한 주일을 살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리사야 장로는 나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려고 자기의 생명을 내주었다. 나도 리사야의 생명을 받았으니 내 생명을 내어 주어야 한다. 나에게서는 예수의 생명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많은 생명들이 있다. 나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을 수차례 겪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며 내일 다시 깨어나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러나 생명을 한 주일 남겨두고 병보석으로 풀려 났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 못한 모든 말을 할 수 있다.

필자는 1990년도에 리사야 장로를 만나서 복음전도를 받았다. 199X년에는 리사야 장로의 집에서 성경을 함께 읽으며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논쟁을 하기도 했다. 리사야 장로가 읽어주는 성경은 대부분 한자로 기록된 아주 오래된 성경이었다. 필자는 리사야 장로와 성경을 읽으며 성경책의 일화를 들었다.

리사야 장로는 7X년도에 보위원들이 가택 수색을 할 때 책을 안고 부엌 널마루를 지나다가 발등에 떨어진 책을 널마루 틈에 밀어 넣었다. 보위원이 마당에 모아놓은 책을 모두 불태우고 막대기로 뒤척이며 확인까지 하고 간 다음 리사야 장로는 부엌에 떨어진 책을 찾아보았다. 성경이었다. 그는 표지를 떼고 성경을 숨겼다. 그리고 날마다 그 성경을 통독하며 외웠다.

리사야 장로가 보관한 성경은 7X년도에 남겨진 아버지의 유품이다. 리사야 장로는 필자와 함께 창세기 전체와 마태복음 전체를 읽고 한 줄 한 줄씩 해석하며 단어의 뜻을 설명해주었다. 필자는 리사야 장로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인 다른 성도들과 여러 번 함께 기도하고 예배했다. 물론 그 때는 신앙심에서 시작한 행위가 아니었다. 그러나 차츰 신앙심이 영혼을 사로잡았다.

시간이 흘러 리사야 장로와 함께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며 심방하고 복음전하는 일을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인이 되고 지하교인이 되었다. 199X년 여름에 리사야 장로가 마당에서 불을 피우고 돼지가죽을 그을렸다. 당시 돼지를 잡으면 가죽을 벗겨서 정부에 바치도록 했다.


그런데 그 가죽을 불에 그슬려서 나와 함께 가자고 했다. 리사야 장로가 고개 넘어 찾아간 집은 식량난으로 굶주린 성도의 가정이었다. 중학생 두 딸과 아내 남편이 모두 방안에 누워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허약이 심각

했다. 리사야 장로는 풍로에 불을 피우고 돼지가죽을 썰어서 가마에 넣고 푹 끓여 물을 떠먹여 주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그 가죽을 부양하며 살려냈다. 북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행군시기 서로 나누어 먹었다.

리사야 장로가 복음전한 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199X년 탈북하게 되었다. 가족이 함께 탈북하여 중국 모 도시의 성경통독반에 들어가 성경을 읽는데 중국공안이 충을 들고 들어와 가족이 모두 연행되고 복송되었다. 가족이 보위부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리사야 장로는 나를 찾아와 함께 기도했다.

L성도의 가정은 기적으로 풀려나 필자와 함께 3개월을 한 집에서 살았다. 그때 L성도의 가정은 늘 찬송을 부르며 매끼 식사기도를 자연스럽게 했다. 중국에서 성경읽으며 생활습관이 바뀌었다. L성도의 가정은 3개월 후 탈북하여 다시 중국에 갔지만 동일한 성경통독반에서 1년 만에 다시 붙잡혀 가족이 모두 복송되었다.

그때도 리사야 장로와 함께 저의 부부는 그들의 탈옥을 위해 기도했다. 놀랍게도 두 번째 탈북행위이었지만 가족전체가 풀려나 필자와 함께 몇 개월을 함께 생활했다. 그 후 L성도는 북한에서 중국과 한국, 미국등 외부 소식을 연결하는 일을 하다가 보위부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옥사했다. 200X년 필자가 탈북한 후 평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추방된 P장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C지역 보위부에 수감되어 순교했다.

지금도 북한에서 박해받으며 복음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가? 리사야 장로처럼 박해받으면서도 악한 죄인의 회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박해 받는 리사야 장로의 복음선포는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처럼 심판과 구원의 메아리가 되어 이 민족의 회개를 요청한다. 북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을 외면하면서 통일을 논할 수 있는가? 

<보안 관계상 지명과 인명은 가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 나의 출애굽기 (12)

●  
드보라

중국에 흩어진 고아 사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 중에는 북한과 중국을 왕래하며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는 그분이 나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보셨다. 오래전 북에 두고 온 두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다. 별로 말 못할 일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큰 아픔인지라 나는 머뭇거리면서 못 대리고 나왔다고 대답했다. 내 대답에 그분은 왜 다른 북한사람의 자식들은 열심히 도우면서 정작 자기 가족은 못 대리고 나왔느냐며 안타까워 하셨다. 나라고 그러고 싶지 않았겠는가? 하는 수 없이 가슴에 묻어두었을 뿐이다. 벌써 수십년이 지난 일이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 괜히 닳은 어린 아이를 보면 착 내 아이인가 싶은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럴리 없다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문득 문득 길에 보이는 아이들의 속에서 내 아이의 얼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아이를 찾아보려고 시도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전에 복송 되었다가 동생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북한 안에 있을 때에도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꽃제비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만 들었다 (18년 10월호 연재 참조). 이후에도 사람을 보냈으나 이미 시댁은 망하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어른들은 다 돌아가셨고 애들이 없어져서 찾을 수가 없었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애들이 꽃제비 되었겠구나... 그러다가 죽었겠구나...’ 하며 들려오는 부정적 소식을 애써 삼키며 현실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다. 내가 가진 아이들을 향한 죄책감은 절망적이었다. 지켜주지 못했다... 라는 말은 어미로서는 차마 입으로 꺼내기 어려운, 아니 꺼내서는 안될 말이다. 그래서일까? 자꾸 미련이 생겼다. 자녀들이 잘못되었다 혹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드릴수가 없었다.

그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면서 애들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2018 부산영화제의 개막작으로 선정된 영화 '뷰티풀 데이즈'의 한 장면. '뷰티풀 데이즈'는 한 여성탈북자(이나영)가 인신 매매로 조선족 남편과 결혼하게 되고 이후에도 두 번의 가정해체를 통해 온갖 아픔과 상처의 나날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꿋꿋하고도 덤덤하게 현실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그려냈다.〉

돌아보게 하셨다. ‘네가 계획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북한이나 중국이나 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으니 네 아이도 하나님께 맡겨라’라는 감동을 계속 나에게 주셨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애들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여부만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이고 양쪽에 우리 애들을 붙잡고 계신 모습을 보게 하셨다. 그때 내 마음에 ‘그래 나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돌보시는구나...’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다. 그때부터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함께하고 계시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다.

한편, 나에게 자녀에 대한 질문을 하셨던

그분은 나에게 내 자식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셨다. 그래서 적어서 주었더니 한 달 뒤에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전화를 받자 그분은 대뜸 나의 가족사항에 대해 이것 저것 물어보셨다. 내 대답을 듣더니 그분은 “맞네 맞아...” 하시며 뚝을 들이시다가 입을 여셨다. 어렵게 어렵게 내 자녀들을 찾았다는 것이다. 아들은 군대가고 딸은 시집을 갔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이들이 살아있다니...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리의 맥이 짹 풀리면서 감사해서 막 울었다.

며칠 후에 내지의 시댁 조카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내 기억속에는 그저 꼬맹이인데 이제는 장가가서 애도 있고 어른이 된 조카가 낯설었다. 조카는 내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자식들은 그나마 잘 살던 셋째 아주버님 댁에서 키워주셨다고 했다. 배급도 안나오는 시절에 자기 자식도 챙기기 어려운데 시동생 애들을 거두어서 키워줬으니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다행이라는 안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나 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이 시집을 갔다는 것도 큰 감사의 제목이었다. 고아를 데리고 가서 며느리를 삼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조건도 많이 따졌을텐데... 그런 어려움을 넘기고 시집을 잘 갔다고 하니 너무 감사했다.

통화를 마치고 난 직후에는 무조건 아들과 딸을 탈출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다시 생각해보니 이미 성인이 된 본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북에 있거나 남에 있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는 깨달음도 있었다.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들이 나에게 자기들을 버렸다고 원망해도 다 받을 마음에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드렸다. 북한 안으로도 말씀이 들어가고 있으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사역에 참여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나에게 맡기신 중국에 흩어진 고아들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 고아 된 우리 자녀도 돌보셨구나’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사역 현장에서도 더 열심을 낼 수 밖에 없었다. 소름이 돋을 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감사하기에... 그 마음으로 중국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정성을 쏟을 수 있었다. 그 아이들과 교제하고,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는 버려진 것 같은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된다. 섬기는 우리가 오히려 은혜와 축복을 경험한다. <계속>

## +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 신년사 발표



〈소파에 앉아 신년사를 발표하는 김정은 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일 신년사를 발표했다. 신년사의 주된 주제는 경제 문제, 특히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였지만, 핵문제 및 미국과 남한을 향해서도 여러 메시지를 던졌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핵폐기를 언급하였고,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2차 북미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이 제재·압박을 유지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남북간 군사분야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이라고 평가하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올해 북한 신년사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이 올해 경제건설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남한 측이 제재 완화를 위해 유엔과 미국을 상대로 제재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된 논의는 신년사에서 언급된 '핵무기를 만들지 않고, 시험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전파하지 않는다'는 '4불(不)'에 대한 해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4불 발언을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로 해석했다. 문정인 통일안보외교특보는 JTBC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의 '4불' 발언에 현재 보유중인 핵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완전한 비핵화는 과거 핵, 현재 핵, 미래핵을 다 포함하는 것인데 신년사 앞부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고, 앞으로도 실험, 사용, 전파, 생산 않겠다고 발언함으로써 미래 핵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다.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김 위원장의 (4불)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타국 판매 금지에 동의하는 데 준비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미치지 못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더이상의 핵무기 생산이 없다는 발언을 핵물질 동결에 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비핵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4불' 발언은 핵폐기가 아닌 동결 주장이라고 보고 북한이 오히려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자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의 의미는 "핵보유국을 굳히려는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과의 핵협상

을 핵군축협상전략으로 굳히려 한다는 것이다. 태전 공사는 김정은의 입장대로 핵무기를 그대로 두고 제재를 풀고 평화체제를 추진하면 그것이 곧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으로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P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bottom line)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준다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국내 에너지 부족과 관련하여 '원자력 발전'을 언급한 대목을 주목하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만약 북한이 영변 경수로와 우라늄농축 시설은 '평화적 핵 이용'에 해당하는 민수용 핵시설로서 '완전한 비핵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전개하거나, 북미 제네바기본합의(1994년)에 따라 짓다가 2000년대 2차 북핵 위기때 중단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다시 요구할 경우 북미협상에 난제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KBS 신년기획 '한반도의 미래를 묻다'에 출연한 자리에서 김 위원장의 원자력 발전 언급이 앞으로 비핵화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북한의 원자력 발전이나 평화적 핵 이용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된 다음에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 + 김정은 위원장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가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 첫 대외 활동으로 방중을 선택했다. 김 위원장은 1월 7~10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을 가졌다. 이번 방중에서는 특별히 양국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국의 역할론이 강조되어 주목된다. 양국 정상은 회담·만찬·오찬 등 만남 때마다 김 위원장의 신년 방중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 정치·경제·군사·문화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노력'을 합창했다.

무엇보다 양 정상은 그동안 설로만 나왔던 시 주석의 집권 이후 첫 공식 방북에 대해 사실상 합의했다. 김 위원장이 공식 초청했고 시 주석은 그에 대한 '계획'까지 통보하며 화답한 것이다. 급변하는 한반도의 정세 속에서 이뤄질 시 주석의 집권 후 첫 방북의 의미와 효과는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특히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와 비핵화 협상 등 대외 정책에 대해 중국과 구체적이고 간소한 전략적 논의와 소통의사를 거듭 밝혔고 시 주석도 동감을 표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 관리와 북미 관계·비핵화 협상 전 과정에서 중국과 "공동 연구·조정" 논의를 공식 표명, 한반도 문제와 북한의 대외 전략에서 핵심 행위자로서 중국의 지위와 안전판 역할을 부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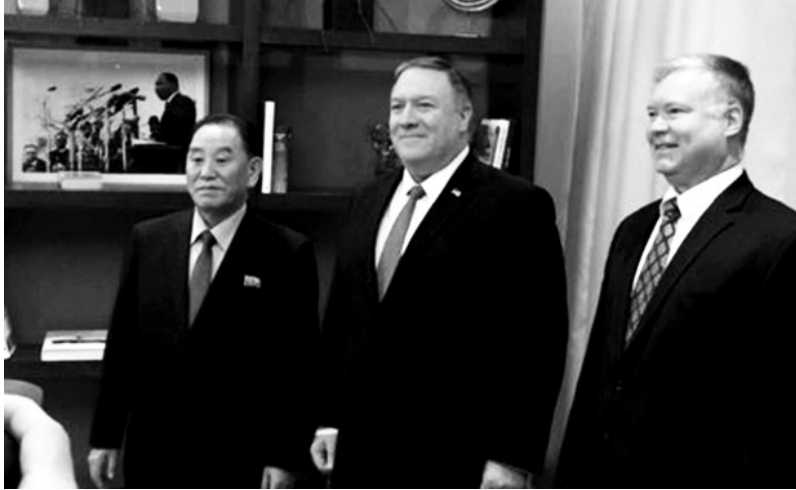
이번 방중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시그널로 분석하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차 담판'을 앞두고 중국을 지렛대 삼아 입지를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이 엇갈리고 있다.

긍정론을 펴는 측은 김 위원장이 "북한은 비핵화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 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유관국이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중시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한반도 문제의 전면 해결을 함께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한 부분을 놓고 김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감한 결단' 의지를 피력한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 2차 정상회담 결심을 굳힌 김 위원장이 시 주석과의 견교 교환 과정에서 미국의 '선(先) 비핵화 구체적 조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의사를 내비치며 이에 따른 중국의 안전판 역할을 재확인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역시 더 이상의 대미 무역 갈등을 원하지 않으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속내를 가진다고 볼 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양보를 전제로 한 북미 양측의 윈윈하는 내용에 맞춰 북중이 전략적 소통을 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서 북미 비핵화에 '촉진자'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는 측에서는 북·중 밀착과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무역 협상이 2차 북핵 담판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 카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북한은 미국 외에 중국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중국은 미국에게 제시할 북한 카드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중 정상회담과 중국의 대북 후원국 역할이 오히려 미국을 자극해 북미 정상회담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동안 남북미 3자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협상 구도에 중국이 끼어들어 복잡성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미북, 양국간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협상 총력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부위원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

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노력이 다방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방미했다. 1월 17일 워싱턴 DC에 도착해 1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김 부위원장과 의전날 백악관 회동에 대해 매우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고, 양측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장소가 정해졌지만 추후 발표될 것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의 휴양시설인 '하크 홀름스톤 콘퍼런스'에서는 1월 19일부터 21일(이하 현지시간)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협상이 있었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은 잠잘 때만 빼고는 대부분 시간을 함께하며 밀도 있는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숙소는 서로 다른 건물에 있었지만, 식사는 모두 함께했다. 함께한 시간이 길었던 만큼 2차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협상에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도 함께했다. 협상은 북미는 물론 한미·남북 등 다양한 양자 회동과 함께 남북미 3자 회동의 형태로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도훈 본부장이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에 힘쓴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한국이 초대된 것은 이례적으로, 우리는 물론 북한과 미국도 한국이 함께한 협상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 보고를 듣고 스웨덴에서 미국과 접촉 중인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협상 진행 경과를 지켜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 +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지난해 11월 잠적



〈주이탈리아 북한 대사관 조성길 북한 대사대리 (BBC 자료)〉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 부부가 지난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공관을 이탈해 잠적했다고 정보당국 등이 밝혔다.

잠적 이유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탈리아 등 외국 정부의 신변보호를 받으며 제3국으로 망명을 타진 중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1월 3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을 만나 "조 대사대리 부부가 같이 공관을 이탈해서 잠적한 상황"이라며 "조 대사대리는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 공관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정 국가가 조 대사대리에 신변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는 이탈리아 당국일 가능성이 가장 크라며 현재 이탈리아 안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조 대사대리가 망명을 타진하는 국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정부에 연락을 취해 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행을 희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에 "조 대사대리가 잠

적한 이후 지난 두 달 동안 (조 대사대리와) 연락을 취했거나 연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당국 등에 따르면 조 대사대리는 지난 2015년 5월 현지에서 부임했다. 조 대사대리의 구체적인 망명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3년 임기가 끝나 본국으로 귀환하라는 지시가 떨어지자 불응해 망명을 결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임 당시 직급은 3등 서기관이었지만 이후 1등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2017년 10월 문정남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가 추방된 뒤 대사대리로 활동했다.

조 대사대리는 1975년생(올해 44세)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그의 출신성분이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고위층 인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조 대사대리와 외무성 같은 곳에서 일했다면서 그의 아버지도 외무성 대사였고, 장인은 리도섭 전 주태국 북한 대사이며 부인은 평양의학대학을 졸업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 ✦ 정부, 北에 타미플루 20만명분 지원



정부가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명분 5만개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통일부는 8일 제30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서면으로 열어 '인플루엔자 관련 대북물자 지원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타미플루 20만 명분 구매비와 수송비 등을 35억6천만 원 범위로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 신속진단 키트는 민간업체로부터 기부받은 물품이다.

물자는 육로를 통해 전달되며, 전달을 위해 통일부와 복지부 실무인원 10여 명이 방북할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과 11월 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감염병의 상호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12일 남북 보건의료실무회의에서 인플루엔자 정보를 교환하고 남북 간에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제 지원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 유엔, 국제아동기금 등 4개 대북 NGO 제재 면제 승인… "구급차, 수도시설 반입 예정"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한 북한 개성의 한 간염 전문병원〉

유엔안보리대북제재위원회가 4개의 인도주의 지원 단체의 대북 물품 반입을 허가하고, 품목을 공개했다. 제재 면제를 승인 받은 4개 단체는 국제아동기금과 유진벨재단,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퍼스트 스텝스(First Steps Health Society)'이다. 올해 들어 유엔이 대북 제재 면제 승인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각각 245만 달러와 300만 달러 어치의 물품을 승인 받았던 국제아동기금과 유진벨재단에는 2~3개월 만에 두 번째 허가가 내려졌고, CFK와 퍼스트 스텝스는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받았다.

국제아동기금은 51개 품목 52만860 달러어치의 물품에 대한 대북 반입 허가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고가의 물품은 러시아가 즈사가 만든 밴 형태의 구급차량 9대로 전체 승인액수의 절반에 가까운 20만5천740달러였다. 응급 산부인과와 비 산부인과 환자들을 지역에서 군(시) 혹은 도 단위 병원으로 이송할 때 사용될 예정이다. 또 다른 고가의 장비는 태양열 양수기 9만6천349달러로, 정주시의 1만2천 주민들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수도꼭지 2만3천350개 등 35개의 수도와 관련된 품목이 강원도 고성군과 함경북도의 명간

군, 량강도 삼지연군의 물 공급을 위해 신청되었다. 이밖에 병원용 노트북 컴퓨터 17대와 텔레비전 40대, 철재지붕 자재 211개와 태양열 발전시스템 6개 등이 결핵 환자 병원용 물품으로 포함되었다. 이날 목록에 이름을 올린 품목들 중 앰불런스를 제외한 모

든 물품들이 중국산이었으며, 중국 단둥 항을 출발해 북한 신의주로 반입될 것이라고 유엔아동기금은 밝혔다.

유진벨재단은 마이크와 스피커로 구성된 총 2개 세트와 12개들이 볼펜 2상자 3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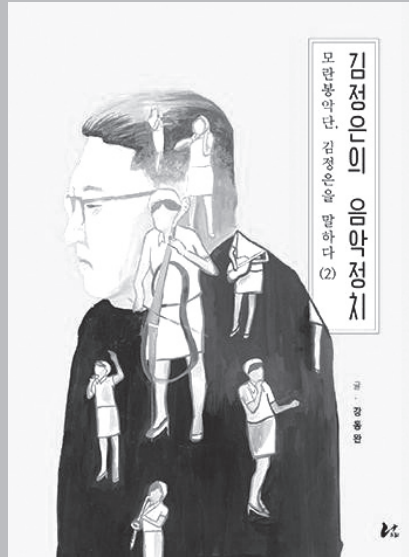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은 4갤론짜리 물통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수질정화 장치 및 위생용품 세트 8천900개와 의료용품 세트 1천994개를 비롯하여 온실 관련 20m 길이의 온실 조립 자재 20개와 트랙터 21대와 관련 부품, 타이어 등이 포함됐고, 건축 관련 전기와 천장, 배관, 바닥 등 공사에 필요한 220개의 품목 수천 개 물품들이 일일이 기재됐다. CFK의 품목들은 대부분 미국산이었고, 일부는 중국에서 조달된다는 문구가 붙었다.

캐나다 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는 "아동 영양실조를 막기 위한 대북 지원과 구호 활동의 일환으로 두유를 담을 수 있는 20리터짜리 스테인리스 캔 300개가 운송될 것"이라는 밝혔다. 퍼스트 스텝스는 2001년 설립된 이래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두유를 지원하고 있다.

이들 4개 단체가 이번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면제는 6개월 뒤인 오는 7월 18일까지 유효하다.



##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김정은의 음악정치**  
**-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2)**

저자: 강동완

출간일: 2018년 10월 25일

출판사: 도서출판 너나들이

가격: 25,000

김정일은 생전에 영화광으로 유명했다. 단순히 보는 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화 제작을 추진하기도 했다. 영화 외에도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신임을 얻고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하기 위해 유일체제 확립을 강력하게 추진했고, 그 일에 문화 예술 영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시와 문학, 집단 공연,

노래 등 거의 모든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 활동이 수령을 찬양하는 작품들로 가득 채워졌을 뿐 아니라 인민들이 정권과 당의 입장에 자연스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상징들과 은유로 채워졌다.

북한의 문화 예술을 통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상징의 전달은 김정은 역시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대외적 입장과는 또 다른 내부의

분위기와 권력층의 의도를 알고자 할 때 문화 예술 공연과 작품들도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의미 있고 색다른 책 한 권 소개하고자 한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의 저서 ‘김정은의 음악정치 - 모란봉악단, 김정은을 말하다(2)’이다. 이 책은 모란봉악단의 2014년 3월에서부터 17년 12월까지 개최된 17회의 공연영상을 분석한 것이다.

모란봉악단이라 하면 북한의 걸그룹으로 알려진, 김정은이 직접 창단하여 이름까지 지어주고 공연내용까지 지도한다는 예술단이다. 북한에서 운영하는 여러 예술단 중에 김정은의 의중을 가장 잘 드러내는 팀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살펴본 모란봉악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악단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먼저 공연이 상당히 철저하게 기획된다. 김정은 앞에서 점검 받는 듯이 공연을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신곡도 발표한다. 전자 악기를 동원한, 북한에서 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사운드의 공연이 이루어지고 격렬하지는 않지만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걸그룹 느낌의 춤사위도 더해진다. 이렇게 새로운 무대와 사운드로 무장한 모란봉악단은 김정은을 비롯한 고위층들 외에도 평양 시민들과 더 나아가 지방 순회 공연까지 가진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된 공연은 다시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을 통해 기사로 소개된다.

앞서 언급한 모란봉악단의 모습을 통해 보듯이 이 악단의 활동은 매우 정치적이다.

다루는 곡들은 절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나 이전 수령에 대한 경애와 충성으로 채워진다. 저자에 따르면 이전에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친근감과 경애를 드러낸 곡들이 많았는데, 이 책에서 다룬 2014년 이후 곡들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충성맹세와 유일사상을 강조하는 곡들이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 신곡을 발표하여 김정은의 현지도 내용을 선전하고 주민들을 독려하거나 당의 정책 기조를 선전하는 등 목적성을 강하게 띤다. 김정은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은 공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레퍼토리이다. 공연 뒷 배경 영상으로 김일성을 연상시키는 김정은의 사진을 띄우기도 하고 김정은을 아버지로 지칭하며 찬양하는 노래도 있다.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업적과 성취를 찬양하는 공연을 하기도 한다. 최근 (2016-17년) 공연들을 보면 광명성 4호나 화성 12호 등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공연들이



<2017년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인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 성공을 경축하는 모란봉악단의 공연 모습. 뒤로 미사일 발사체 화면이 보인다.>

많았다.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으면 그런 공연이 무슨 흥미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 것이다. 공연의 구성과 노래의 내용이 어찌보면 지루한 정치적 메세지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공연을 관람하는 관람객이라면 어떨까 생각해볼 때 의도된 것임을 알지만 공연 자체는 사람을 끌어드리는 마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란봉악단의 광명성 4호발사 기념 공연을 보면 공연 중간에 미사일 발사 카운트다운 장면 등을 삽입하고 인공기와 미사일을 조합한 사진을 띄우면서 <빛나는 조국>, <김정은 장군께 영광> 등의 노래를 공훈국가합창단의 남자 단원들의 코러스 합창과 함께 부른다.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음악 속에 충성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생길 것 같은 힘이 있다. 왜 김정일과 김정은이 이러한 문화 예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에 대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고, 과연 이 책의 제목에 왜 ‘음악 정치’라는 표현이 들어갔는지 납득하게 한다.

이 책의 저자 강동완 교수는 책의 부록에서 모란봉악단 외에도 작년(2018년)에 있었던 삼지연관현악단의 남한 공연을 분석하면서 김정은의 치밀한 음악 정치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덧붙여 노래와 공연들 속에서 한 명의 독재자를 향한 절대적인 우상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음에 대해 언급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진정한 북한의 변화에 대한 소망을 언급하기도 했다.

글로는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책에 실린 공연장면과 공연 흐름 분석, 노래와 가사 소개, 그리고 관련 북한 방송의 보도 등은 어떻게 자료를 다 구해서 정리했을까? 싶을 정도로 풍성하다. 그간 한국 언론에서도 모란봉악단 관련해서 여러 흥미로운 기사나 가첩들이 한동안 나왔었다. 그렇지만 분석적 시각을 가지고 풍부한 자료를 갖춘 이 책이 그동안의 신변잡기식 기사보다 훨씬 유용하고 의미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본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일독을 적극 권한다.

## 북한 기도 제목

1. 박해받는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는 화해 분위기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을 숨기고 생활하는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고단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을 영육 간에 지원하기 위한 각종 지원과 사역이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산간오지 및 탄광 등에 추방된 수만의 성도들이 경험하는 인권유린이 하루속히 중단되어 성도들이 자유를 얻도록 기도합니다.
2. 북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비롯하여 북에 납치되거나 잡혀간 탈북민 출신 사역자 및 조선족 사역자들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석방되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특별히 북한이 우상숭배를 포기하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루속히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3. 한반도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곧 열릴것으로 보이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 북한간의 입장차를 좁히고 원활한 회담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한창입니다.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점이 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이 비확산이나 동결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핵폐기로의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관련된 각국 리더들을 비롯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 각국의 의사결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사명과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는, 복음으로 한반도를 섬기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통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통일의 일꾼을 키우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그리고 분단의 상처와 핍박의 아픔을 싸매어줄 수 있는 사랑과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에 충실한,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그리스도의 가치를 성취하는 교회가 되도록 회개와 회복의 역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5. 혹독한 겨울을 견디고 있을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한에 비해 훨씬 극심한 추위에 시달리는 북한 땅이지만 경제적 문제로 충분한 난방과 식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는 북한 주민들이 겨울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이들을 돕고자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온정을 나누는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유용한 사역의 문들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6. 선교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 3국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 애쓰시던 선교사들에 대한 신변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추방과 통제, 선교를 어렵게 하는 법령과 정책 뿐 아니라 현지 교회에 대한 압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악화된 현지 사정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양육해줄 사역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선교회에서도 여성 및 일반 분야에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가 상황적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피땀 흘려 헌신하며 수고해온 사역이 계속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법과 정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어 복음의 진보를 막는 일이 중단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선교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밤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철책 너머 북으로 전파를 통해 송출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전파는 국경을 넘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날씨나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북한 성도와 주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더 깨끗한 음질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 및 자체 후원 라디오 사역 등을 통해 라디오 복음 사역에 힘쓰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단체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봉사하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8. 세계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을 비롯하여 믿음 때문에 상당한 수준의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의 숫자가 한 해 2억명이 넘습니다. 기존 박해 지역도 해가 갈수록 세계적인 박해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처한 교회와 성도들이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고통받는 성도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오픈도어선교회를 포함한 사역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19년 2월 1일



# 한국 오픈도어선교회 사역자 모집(전임)

전 세계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믿음 안에 굳세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오픈도어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북한선교에 헌신할 사역자를 구합니다.

	현장 선교사	회계 담당 사역자
모집인원	여성 사역부분 : ○명 / 일반 사역부분 : ○명	○명
주요업무	- 현장의 필요에 따라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에 참여 - 여성 부분의 경우 북한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복음사역 참여	- 일반 회계 업무 및 프로젝트 관리
지원자격	- 교회 및 노회(지방회)의 인정을 받는 분으로서 교육부 인가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학위 (M.div)를 받은 분	- 영어 업무 가능자, 회계 관련 경력 또는 전공자
우대사항	- 어학: 중국어 우수자 - 여성부분의 경우 독신자 우대 - 45세 미만 연령 (예외 가능)	- 재정 및 회계 부서 유경험자 - 외국계 기업 등 영어를 사용한 업무 환경에서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사역조건	- 선교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	- 4대 보험 지원, 급여 개별 협의
공통사항	- 고난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돕는 일에 열정과 사명을 가진 분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신앙고백서(홈페이지 양식 참조) - 추천서 2부, 최종학력 증명서 및 관련 증명서 사본 (면접시 지참)	

## 기관소개

-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와 [www.opendoors.org](http://www.opendoors.org) 사이트 참조
- 사역 조건: 선교 파견자는 선교회에서 사역비를 지원하며 구체적 내용은 개별 협의함
- 모집기한 : 구인시까지
- 문의처: 이제나 간사: 010-4668-6356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서류제출 - 이메일: [info@opendoors.or.kr](mailto:info@opendoors.or.kr)  
- 우 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한국 오픈도어**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 세계기독교박해순위 WORLD WATCH LIST 2019



그리스도인의 57개 영역에서의  
박해 인력 정도

개인영역  
최고점수 = 16.7

가족영역  
최고점수 = 16.7

공동체영역  
최고점수 = 16.7

국가영역  
최고점수 = 16.7

교회영역  
최고점수 = 16.7



폭력  
최고점수 = 16.7

박해 최고점수  
= 83.3

폭력 최고점수  
=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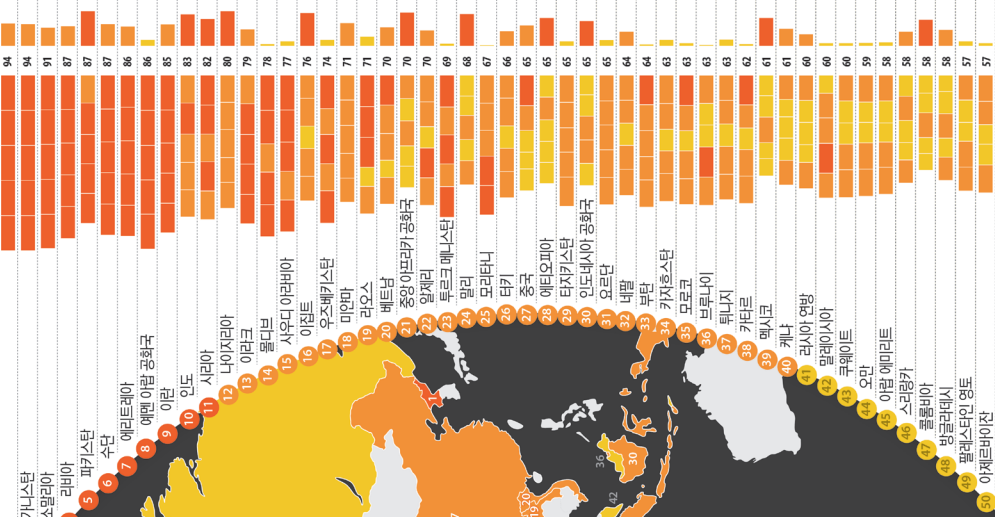
순위 #  
최고점수 = 100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06-3171 | 070-7522-3171 | [opendoorkorea@gmail.com](mailto:opendoorkorea@gmail.com)  
[www.opendoors.or.kr](http://www.opendoors.or.kr) | <https://www.facebook.com/opendoorsko>

박해순위



박해정도





# 제 7회 오픈도어 2019 북한 선교 학교

2019년 4월 1일 - 7월 22일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 생명나래교회 본당 (사당역 6번출구 앞)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일반에서부터 국내 통일 선교 사역과 북한 선교 현장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통해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품는 기회 될 이번 선교학교에 뜻이 있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북한 선교에 소명을 가진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프로그램

#### 가) 1차 북한에 대한 이해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4월 1일	북한 사회와 문화 변화	강동완 (동아대 교수, 부산 하나센터장)
4월 8일	북한 정치와 주체사상	정종기 (아시아연합신대 북한선교대학원 교수)
4월 15일	북한 경제와 장마당 세대	정은찬 (통일교육원 교수)
4월 22일	북한의 어린이, 청소년 실태	이성희 (미래소망스쿨 교감, 전 북한 국어교사)
4월 29일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양영식 (고양시정연구원 원장, 전 통일부 차관)

#### 나) 2차 북한에 대한 선교적 접근 (강사 변동 가능)

날짜	주 제	강 사
5월 13일	탈북 난민과 인권, 그리고 북한 선교	지성호 (NAUH (나우) 대표)
5월 20일	교회에서 준비하는 탈북민 복음화와 통일 목회	하광민 (생명나래교회 담임)
5월 27일	북한 교회 핍박의 현장	박한나 목사
6월 3일	탈북 청소년, 새로운 통일의 세대	김두연 (한꿈학교 교장)
6월 10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 선교	박헌석 ((재) 나이스 피플 사무총장)

#### 다) 3차 북한 선교의 실제

북한의 지하교회와 그루터기, NGO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미디어를 통한 북한 선교 전략, 탈북 여성 사역, 북한선교현장의 실태 등 실제적인 북한 선교 사역을 주제로 관련 전문 사역자 강의

#### 라) 선교학교 이후 국내 민통선 기도여행 및 현장 아웃리치 실시 예정

### 접 수

- 온라인(3월, 홈페이지 공지 참조) 및 현장 접수 (강의 1, 2주차)
- 등록비: 학기당 5만원 (사전 등록자 할인)

### 문 의

오픈도어선교회 다니엘 간사

Tel: 010-5107-8448, E-mail: info@opendoors.or.kr

주최: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본세력 후원하는 교회별 정기 후원도어선교회

후원: **종교개혁 500주년**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The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